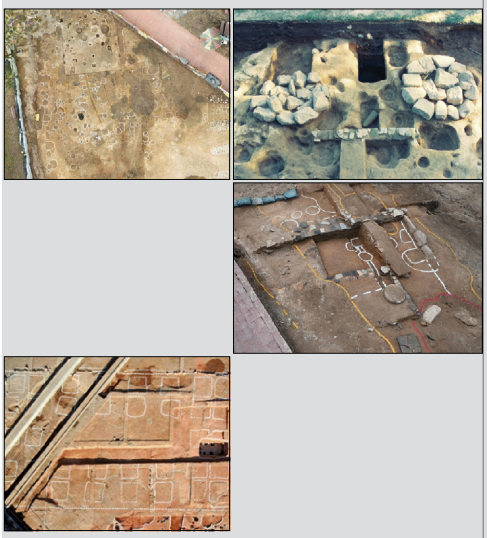
http://doi.org/10.20292/jcich.2025.47.69



백제 사비기 왕궁·관아 건물의 변천 과정 연구

– 부여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olution of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 Sites during the Baekje Sabi Period

- Focusing on Busosanseong Fortress in Buyeo -

김 대 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사

Ⅰ. 머리말

Ⅱ. 부소산성 내부 건물지 조사 현황

Ⅲ. 건물지 분석 및 재인식

Ⅳ. 부소산성 내 건물지와 사비기 왕궁·관아 건물의 변천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5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본 연구는 백제 사비기 왕성으로 연구되고 있는 부소산성 내 건물지를 대상으로 기존 조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백제 후기 왕궁 · 관아 건물의 성격과 변천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부소산성 내부 건물지는 과거 수혈식 건물지가 주요 건물지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연구를 통해 수혈 건물지는 통일신라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신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 벽주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 등이 주요 건물지로 확인되었다.

특히 백제 사비기 건물지는 종교시설인 사찰을 중심으로 발굴조사와 연구가 우선 진행되면서, 왕궁 · 관아 유적의 건물지는 사찰 내 건물지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왕궁 · 관아 유적과 종교 유적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최고급 자재가 사용되나 종교유적은 교리와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건축양식이나 사용되는 자재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완성된 종교가 유입될 경우 그 건축양식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왕궁 · 관아 유적의 건물지와 종교 유적의 건물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백제 사비기 왕궁 · 관아 유적의 건물지만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사비기 왕궁 · 관아 유적의 건물지는 크게 3단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물지 1단계는 사비천도가 진행되는 6세기 전반부터 사비도성 내부가 재개발되는 6세기 후반 이전으로 이 시기는 웅진기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와 벽주 건물지가 왕궁 · 관아 유적의 중심 건물로 계속 유지되는 시기이다. 사비기 건물지 2단계는 6세기 후반부터 무왕 31년(630)까지 시기로 대부분 주요유적에서 1단계 건물지 상면을 성토하고 와적기단 건물지(초석 건물지)를 조성하여 중심 건물로 이용하는 시기이다. 사비기 건물지 3단계는 7세기 전반(630년)부터 백제가 멸망하는 7세기 중반(660년)의 기간으로 부소산성 내부에 더 이상 새로운 형식의 건물지가 조성되지 않으며, 관북리 유적과 왕궁리 유적에 대형전각건물지가 중심 건물로 조성된다.

이러한 단계별 건물지의 변화 모습과 중심 건물지의 조성 위치 변화는 부소산성을 비롯한 사비왕궁지구 일대의 중심지 변화와 함께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백제, 사비기, 사비도성, 건물지,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왕궁 · 관아 건물지

Ⅰ. 머리말

건물은 사람들이 살거나 일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해 만든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1] 인간의 주거문화와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단서이자, 만들어진 크기나 재료, 축조한 방식에 따라 성격이나 위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건물은 선사시대 수혈식에서 점차 지상화 되는데, 건물의 지상화 과정은 생활면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건물의 다양한 건축구조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생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김대영 · 한욱 2023: 35~36). 중국에서는 이미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지상 주택이 등장하여 일반화되었으며, 불완전하나마 목조 주택이 정착된 것으로 연구(손세관 2001: 115~116)되고 있다. 하지만 백제에서는 한성기 후반부터 수혈 건물지가 점차 지상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류기정 2003; 이건일 2009)가 일반적이다.

고대국가에서 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왕궁 · 관아 유적과 종교 유적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최고급 자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종교 유적은 교리와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건축양식이나 사용되는 자재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완성된 종교가 유입될 경우 그 건축양식이 함께 들어와 사회에 이질적인 물질문화가 이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 국가나 정치체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수도나 중심지의 물질문화가 가장 유용한 자료이며, 그중에서도 왕궁 · 관아 유적은 그 나라의 기술력과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물질 자료이다.

왕궁 · 관아 유적에서 가장 핵심 시설은 고대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왕과 직접적 관련 있는 왕궁과 왕성일 것이며, 고대국가의 왕도, 즉 수도에는 왕궁과 왕성이 필수적으로 위치해야 한다. 즉 왕궁과 왕성을 중심으로 한 물질문화 연구를 통해 백제 국가가 어떻게 변화 · 발전되었는가를 究明하는 작업은 고대국가 백제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중 건물지는 왕궁과 왕성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유구로 그 공간의 위계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문화이다. 그러나 그동안 백제 사비기 건물지는 종교 유적인 사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왕궁 · 관아 유적의 건물지 변천 과정에 대한

1) 표준국어대사전

이해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사비 천도를 전후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 조성된 것으로 연구되는 능산리 사지나 군수리 사지 등에서 이미 와적기단 건물지와 초석 건물지가 완성된 형태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사비기 중심 건물은 초석 건물지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궁 · 관아 유적의 건물지는 적어도 종교 유적에서 확인되는 건물지와 비교하여 동일한 위계를 갖거나 보다 더 위계가 높아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건물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미 부소산성이나 쌍북리 유적, 화지산 유적에서 웅진기 건물지에서 이어지는 굴립주나 벽주 건물지 흔적이 조사되었으나 이를 왕궁 · 관아 유적의 중심 건물지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부소산성의 성격은 발굴조사가 진행될수록 왕성에서 후원이나 방어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조사 · 연구 자료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백제 건물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비도성 내에서도 다수의 건물지가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조사된 자료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백제 사비기 왕성인 부소산성 내 건물지를 검토하는 것은 백제 후기 왕궁 · 관아 건물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더하여 부소산성 내 건물지의 단계별 변화 모습을 중심으로 사비도성 내 대표적인 왕궁 · 관아 유적의 건물지 변화 모습과 비교 · 검토하여 웅진~사비기로 이어지는 백제 왕궁 · 관아 건물의 모습과 변천 과정을 究明하는 것이 이번 논고의 목적이다.

Ⅱ. 부소산성 내부 건물지 조사 현황

부소산성 내부에서 확인된 유구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건물지로 보고서에서는 수혈 주거지와 건물지를 나누어 고찰하였으며(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3: 205~207), 보고된 수혈 주거지의 수는 18기이다. 수혈 주거지 중 2000년에 조사된 나 1~4호와 다-3호는 주거지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고 내부에서 노지와 같은 시설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유구의 성격이 확실하지 않으며, 그 외 주거지는 한 변이 4m 내외인 경우가 많다.

부소산성 내 건물지 내부에서는 기존 백제 웅진 · 사비기에 보이는 벽주, 가구식

굴립주 건물[2]과 다르게 대부분 수혈식 건물지로 노지가 확인되거나 노지를 설치했던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노지의 형태는 크게 두 종류로 세분되는데, 한쪽 벽면을 따라 비교적 길게 연결되는 터널형의 노지가 시설된 것이 8기이며, 주거지의 모서리 부분이나 중앙 벽면 등에 부뚜막식 노지나 소토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3기, 노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6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1983년 수혈주거지를 '병영지'로 추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군사들이 상주하면서 조성된 군사시설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다만 군사시설물이라고 보기에는 무기류 등이 출토된 사례가 거의 없어 성이 군사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 일종의 민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되었다(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3: 206~207).

그러나 당시 왕궁 등 백제의 중심시설들이 부소산성에 있었다면 왕성 내 민가와 왕궁이 같이 배치된 것이며, 왕궁 바로 옆에 별도의 구분이나 차단 없이 민가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이는 병영지 성격이어도 어색하다. 만약 왕궁이 부소산성 밖에 관북리 · 쌍북리 일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왕궁 바로 뒤 더 높은, 왕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지점에 평상시 병영지나 민가가 위치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이 주거지들은 비록 일부 중복 관계 등이 보이기도 하지만, 평면 형태나 내부구조 등에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조성 시기는 보고서에서는 병영지 성격으로 주거지의 구조상 비교적 정연한 노지가 시설된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노지가 백제 사비기 주거지의 전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단 축조 자체는 백제 사비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3: 207).

하지만 백제 웅진 · 사비기의 왕궁 · 관아 건물지에서는 대부분 노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웅진기부터 왕궁 · 관아 건물은 지상화되고 국가시설 외의 건물은 아직까지 수혈 주거지가 조성된 것으로 연구된다(김대영 · 조운득 2024: 154).

비교적 잔존상태가 좋은 1983년에 조사된 수혈 주거지와 2000년의 나-6호 주거지, 2002년의 다-1호 주거지의 바닥에서는 7세기대에 해당하는 인화문 토기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출토된 바 있다(洪潽植 2001: 80). 보고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주

2) 김대영 · 한욱(2023: 36~37)에 따르면 생활면 위치, 규칙적인 기둥 간격 유/무, 기둥 세우는 방식에 따라 백제 건물지를 분류하였다. 이중 가구식 굴립주 건물은 일정 간격의 주공이 주망을 형성하고 기둥을 땅을 파고 세우는 형식으로 청동기시대 굴립주 건물지와 구분하여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로 명명하였다.

[표 1] 부소산성 건물지 조사 현황표(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3: 206, 〈표 4〉 수정 후 재인용)

조사 지역	조사 연도	유구명	평면 형태	규모(m)	구조 특징 및 내부 시설	바닥층 출토유물
부소 산성 서남편	1983	제1수혈 건물지	방형	4×4	· 노지–위치: 서벽, 규모: 길이 3.7, 폭 0.6, 석축	· 인화문 토기 등
		제2수혈 건물지	방형	4.2×4×0.5~0.6	· 노지–위치: 동벽, 석축	
		제3수혈 건물지	방형	4×4× 0.7~0.9	· 노지–위치: 동벽, 규모: 길이 3.6×0.3×0.3, 석축 · 출입구 계단시설–위치: 남벽 – 규모: 높이 0.35, 2단 · 추정 침상시설 – 위치: 주거지 서편 – 평면형태 및 규모: 'ㄱ'자형, 북변길이 2.48 서편길이 2.78, 깊이 0.28	· 노지 바닥부 5세기대 뚜껑 · 인화문 토기
군창지 남편 대지	1992	방형 주거지1	방형	3.5×3.5×0.3	· 방형주거지 2에 의해 북동편 파괴 · 노지–위치: 남벽 동편, 규모 2.35×0.85, 석축	
		방형 주거지2	방형	4×4	· 노지–위치: 동벽 북편, 석축	
		방형 주거지3	방형	4.6×3.6(잔존)	· 노지–위치: 서편, 규모: 0.9×0.7, 타원형 소토층	
		방형 주거지4	방형	5.2×5.2	· 북벽, 서벽 내측 바닥 5개 주공 (직경 0.2, 깊이 0.15~0.2), 주칸거리 0.95~1.3	
북문지 동편 일대	2000	나–1호 주거지	·	3.6×3.1(?)	· 추정 주거지 · 노지– 위치: 동벽중앙부, 타원형, 규모: 1.1×0.4	
		나–2호 주거지	방형	2.5×2.5	· 추정 주거지 · 내부 수혈 2기 확인	
		나–3호 주거지	근방형	4×3×0.3	· 추정 주거지 · 내부 수혈 2기 확인	
		나–4호 주거지		1(잔존)×2.6	· 내부 수혈 1기 확인	
		나–5호 주거지	방형	4.1×3.8×0.7	· 출입시설–남벽 중앙부 출입시설의 기둥 2기 · 노지–위치: 북벽 서편, 규모: 1.5×0.5, 토축 · 내부 수혈 4기	· 인화문 합 완형
		나–6호 주거지	방형	4×4×0.4	· 노지–위치: 북벽 서편, 규모: 1.3×0.6~0.9 · 바닥 점토다짐	
		나–7호 주거지	근방형	4.4×3.7	· 노지–위치: 북벽동편, 소토부 · 주거지 남편 주머니형 수혈1기(선행유구)	
		나–8호 주거지	근방형	3.7×3.2×0.2		
	2002	다–1호 주거지	방형	4.4×4.2×0.3	· 노지–위치: 북벽동편, 규모: 폭 약 60(터널형)	· 인화문 토기
		다–2호 주거지	장방형	4.1×2.7×0.1~0.3	· 바닥 점토다짐 · 노지–위치: 서북 모서리, 규모: 1.5×0.5	
		다–3호 주거지	근방형	4.2×3.7		

제1 수혈 건물지

제3 수혈 건물지

다지구 수혈 건물지 전경

나지구 6, 7호 주거지 전경

다지구 수혈 건물지 전경 및 바닥 출토 인화문토기

외적기단 건물지

굴립주 건물지

[사진 1] 부소산성 조사 건물지 현황

거지의 구조상 축조의 상한 연대는 백제 사비기로 보고, 주거지의 사용 또는 폐기의 하한연대는 통일신라 이른 시기라고 보았다.

추가적인 이유로 통일신라시대의 테뫼식산성이나 서북편의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등에서 9세기 이후의 명문와나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에 반해 이 주거지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인화문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2000년에 확인된 주거지를 덮고 있는 상층에서 늦은 시기의 유물들이 출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부소산성이 대대적으로 수축 · 보수되었던 통일신라시대 말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고찰하였다(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3: 207).

백제 사비기의 건물지에 대해서는 1985년과 1993년에 각각 추정 서문지 일대 및 군창지 동편에서 확인된 瓦積基壇 建物址 2기와 2001년 북문지 동편에서 확인된 굴립주 건물지 1기가 보고되었다. 서문지 주변에서 확인된 와적기단 건물지는 북편 기단 일부와 동편 기단만이 잔존해 있는 상태로 동편 기단의 남북 길이는 약 10m, 북편 기단의 동서 잔존 길이는 약 2.5m이다. 기와는 최대 12층까지 풍화암반층을 'ㄴ'자형으로 파내고 평적하여 쌓았으며, 동편 기단의 남북 양단에서 각각 2.1m 거리를 두고 폭 0.9m 구간에는 와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출입구 시설로 추정하였다.

군창지 동편의 와적기단 건물지는 조선시대 건물지2 하부에서 확인된 것으로 동서방향의 1열, 2m 정도만이 잔존해 있어 정확한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부소산성 발굴조사 결과 성 내부에서 위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지 않고, 수혈건물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소산성의 성격을 왕성보다 후원이나 배후산성으로 비정하는 하나의 지표자료가 되었다.

Ⅲ. 건물지 분석 및 재인식

최근 조사 · 연구 자료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백제 건물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비도성 내에서도 다수의 건물지가 조사되고 있다. 새롭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조사된 건물지를 재검토한 결과 기존 부소산성 내 주요 건물지로 인식되고 있던 수혈건물지는 대부분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 벽주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 초석 건물지 등이 부소산성 내 주요 건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소산성에서 보고된 수혈 건물지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백제 웅진 · 사비기 왕궁 · 관아 건물로 이해하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많다. 보고서에서 수혈 건물지(주거지)로 보고된 유구 내부에서 유물이 확인되는 경우 대부분 통일신라시기를 대표하는 인화문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표 2] 통일신라 유물 출토 수혈주거지 현황표

위치	유구	종류	세분류		수량	비고
추정 서문지	수혈건물지1	토기류	뚜껑 (물방울무늬, 점열문)	인화문 토기	3	
			대부완(이중원문)	인화문 토기	1	
	수혈건물지2 남쪽 구덩이 · 저장공	토기류	대부완편(점열문)	인화문 토기	1	
			주름무늬병		1	
		기타류 기타류	납석제 뚜껑		1	
			납석제 손잡이편		1	
	수혈건물지3 북편 저장공	토기류	뚜껑편(마제형문)	인화문 토기	1	
추정 북문지	나지구 5호 주거지	토기류	병 저부편(점열문)	인화문 토기	1	주거지 내 수혈
	나지구 6호 주거지	토기류	대부완 (이중원, 물방울무늬)	인화문 토기	1	유구 바닥
	나지구 7호 주거지	토기류	뚜껑(이중원문)	인화문 토기	1	유구 바닥
	다지구 1호 주거지	토기류	완 구연편(물방울무늬)	인화문 토기	1	유구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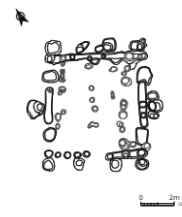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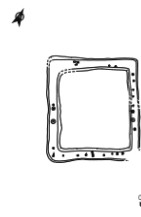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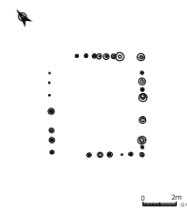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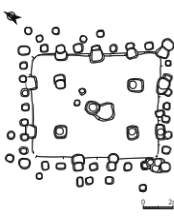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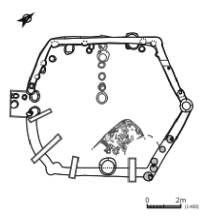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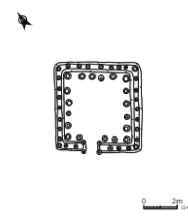
보고서에서 수혈 건물지에 귀속시켜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군창지 주변 평탄지에서도 수혈 건물지가 조사된 지역 주변으로 인화문 토기가 92점이나 출토되었다. 따라서 군창지 주변 수혈 건물지도 통일신라 시기로 편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22년 부소산성 군창지 주변 시굴조사 시 군창지 서쪽에서 새롭게 확인된 수혈 건물지 안에서 인화문 토기가 출토되는 양상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소산성 내부에서 확인된 대부분 수혈 건물지는 통일신라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소산성 출토 통일신라 토기는 백제 멸망 이후 7세기 후반부터 9세기에 이르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화문 토기 중 이른 형식의 것으로 이중반원무늬 · 이중원무늬 · 물방울무늬 등이 표면에 베풀어졌으며(홍보식 2020: 333~334), 이 토기들의 본격 확산은 671년 소부리주가 설치되는 시점 이후로 연구되고 있다(서현주 2017: 170).

최근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소산성 내 유구들을 재검토하면 그동안 부소산성

내에서 조사가 되었으나 주목되지 않았던 유구들이 있다. 먼저 1983년 조사된 추정 서문지 동쪽 대지를 보면 수혈건물지들과 중복되면서 북동쪽과 남서쪽 벽면이 훼손되었으나 직경 40~80cm의 주공이 매우 정연하게 열을 맞춰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보고서에서는 별도의 유구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조사되고 있는 벽주 건물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웅진 · 사비기 가장 일반적인 벽주 건물지 3형식에 해당하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김대영 · 조운득 2024: 153).

1984년 서문지 남동쪽의 목책유구로 보고된 자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유구는 방형으로 굴광한 주공의 내부에 목주의 흔적이 확인되는 형상인데, 'ㄱ'자 형태로 꺾이는 모습을 보면 최근 쌍북리 유적이나 공산성 추정왕궁지 일대에서 확인되는 굴립주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 2002년 조사된 북문지 동쪽 산사면 평탄지에 토기 밀집유구로 보고된 자료도 있는데(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3: 151~152), 이는 건물지 2기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이고, 중복된 위치에 수혈건물지가 조성되었다. 밀집된 토기는 수혈건물지 폐기층에서 확인된다.

형식	1유형		2유형	
	1-1유형	1-2유형	2-1유형	2-2유형
도면				
유적	부여 나성-북나성 Ⅴ · Ⅵ Ⅱ-1단계 건물지2	익산 신동리 유적 1지구 1호 건물지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 2호 건물지	공주 공산성 건물지 굴건식 건물지1
형식	3유형	특수형		
도면				
유적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 25호 건물지	공주 정지산 기와건물지	공주 공산성Ⅳ Ⅷ-24호 건물지	부여 왕포천변 유적 정밀2지점 백제Ⅰ층 3호 건물지

[도면 1] 벽주 건물지 유형분류(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24b: 36 재인용)

조선시대 군창지의 北庫 주변에서는 주공열이 확인되는데, 조사 당시에는 백제 주혈 유구로 보고되었다. 이 주공 유구들은 군창지와 중복되어 군창지 초석 사이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전체 현황을 보면 정연한 열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벽구 내에 주공열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유형의 벽주 건물지로 판단된다. 대부분 2유형의 건물지가

(추청서문지)유구명× → 벽주 건물지 3유형

(추청북문지)토기밀집유구 → 굴립주 건물지

(추정서문지)목책유구 → 벽주 건물지 3유형

(군창지)백제 주혈유구 → 벽주 건물지 2유형

(군창지)유구명× → 와적기단 건물지

유구명× → 초석 건물지

[사진 2] 부소산성 재인식 건물지

웅진기 벽주건물 중 면적 분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심 건물에 사용되는 (세)장방형 평면 형태의 건물지로 확인된다(김대영 · 조운득 2024: 161).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나 벽주 건물지 외에 와적기단 건물지와 초석 건물지도 확인된다. 군창지 동쪽의 와적기단 건물지는 발굴조사 당시 조선시대 건물지2를 설명하면서 건물지 내 와적기단이 200㎝ 남아 있으나 주변의 유적이 심하게 교란되어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7a: 74).

당시 사진을 살펴보면 기반토에는 크고 작은 굴립주 주공들이 다수 확인되며, 그 상면을 수평하게 성토하여 와적기단 건물지를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지에 대해서는 최근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와적기단 건물지의 북쪽 기단을 추가로 확인하여 건물지의 남-북 길이가 약 11m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23a).

이외에 1983년 추정 서문지 주변 북동편으로 제2수혈 건물지 북쪽에서 3개의 초석이 일정 간격으로 확인되어 초석 건물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초석의 지름은 약 70~100cm 정도이며, 기단 없이 기반토에 바로 올려 놓고, 두꺼운 석재를 사용해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었다. 사진으로만 확인하여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려우나, 부소산성 17차 시 ·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2지구 41번 트렌치에서 유사한 건물지가 확인되어 백제 사비기 건물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소산성 내 건물지는 2020년 이후 발굴조사가 재개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부소산성 내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공사와 더불어 진행된 군창지~사자루 구간 긴급 시 · 발굴조사와 16차 학술발굴조사, 백제 사비기 왕성 · 왕궁 확인을 위한 종합학술연구로서 2022년부터 진행된 부소산성 17차 시 · 발굴조사가 추진되면서 부소산성 내 유구의 시대별 변화모습과 내부 공간의 활용 양상, 성내 주요 건물지의 분포 모습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2020년 진행된 군창지~사자루 구간 긴급발굴조사 지역 중 추정 서문지와 사자루 사이 평탄지에서는 기반암에 굴립주 · 벽주 건물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후 건물지 상면을 약 30~50㎝ 가량 물성이 다른 흙을 교호성토한 뒤 상면에 초석 건물지를 조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군창지 구간)에서도 백제 사비기 와적기단 건물지 조성층 하층에 원형과 방형의 굴립주 건물지 주공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부소산성 동쪽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군창지 일대 평탄지나 서쪽

구릉부에 있는 사자루 남쪽 건물지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부소산성 내 건물지는 크게 2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소산성 내 건물지 1단계(하층)는 대지를 정지한 후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나 벽주 건물지를 조성하였고, 2단계(상층)는 1단계 상

군창지 일대 굴립주, 벽주 건물지(1단계)

사자루 남쪽 상 · 하층 건물지 현황(左 하층)

부소산성 17차(군창지구간) 와적기단 건물지 및 하층 굴립주, 벽주 건물지 노출 현황

군창지 동쪽 와적기단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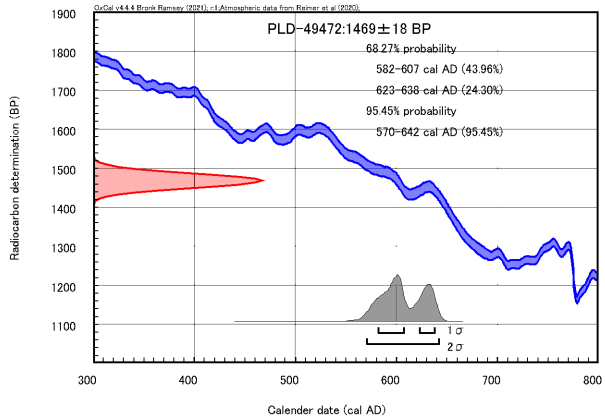
군창지 서쪽 초석 건물지

[사진 3] 최근 조사된 부소산성 건물지

면을 성토하거나 대지를 다시 조성한 뒤 와적기단 건물지나 적심이 사용되지 않는 초석 건물지가 축조되었다.

1단계 건물지의 조성 시기는 웅진기 건물지의 형태와 연결되며, 사비 천도 시기를 고려할 때 6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단계 건물의 조성 시기는 와적기단 건물지에서 나온 방사성탄소연대 결과와 관북리 일대 와적기단 건물지가 축조되는 시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부소산성 17차 시 · 발굴조사 중 와적기단 건물지 남쪽의 기단에서 목탄이 확인되었다. 목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수종은 소나무과이며,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및 역년교정 결과 기원후 560~642(95.45%)이거나 A.D. 582~607년(43.96%) 또는 A.D. 623~638년(24.30%)이 산출되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의 시간 폭에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북리 유적의 성토 대지가 조성되는 6세기 후반경과 거의 동일한 시기로, 관북리 유적에서 대지 성토 후 2단계에 와적기단 건물지가 조성되는 것을 보았을 때, 부소산성과 관북리 일대의 건물 변화는 거의 동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2] 부소산성 와적기단 건물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Ⅳ. 부소산성 내 건물지와 사비기 왕궁 · 관아 건물의 변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소산성 내 백제 사비기 건물은 1단계에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와 벽주 건물지, 2단계에는 초기 초석 건물지와 와적기단 건물지가 중심 건물로 확인되는데, 이는 웅진기 중심성인 공산성 내 유구 현황이나 사비기 천도 초기

중요 건물지가 확인된 쌍북리 일원, 이궁지로 비정되고 있는 화지산 유적 등의 건물지 조사 현황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건물지 전개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다.

사비도성 내에는 수혈건물지,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 벽주 건물지, 초석 건물지(와적기단 건물지, 1동 2실 건물지), 특수형 건물지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지가 조사[3]되고 있다.

그동안 사비도성의 건물지 연구는 왕궁 · 관아 유적과 종교 유적인 사찰을 같은 선상에서 연구해왔기 때문에 그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사비기 가장 이른 시기 사찰로 논의되는 군수리 사지, 능산리 사지 등에서 이미 기단이 있는 초석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비 천도를 전후한 시점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사찰에서 이미 초석 건물이나 와적기단 건물, 1동 2실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발달된 건물지가 확인되므로, 웅진기 중심 건물은 벽주(굴립주) 건물이고, 사비기 중심 건물은 초석 건물이라는 인식만 있었을 뿐 연결되는 두 지역의 건물지 변화 모습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사비도성 내 발굴조사는 일찍부터 대부분 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비기 위계가 높은 건물은 발달된 초석 건물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사비기 왕궁 · 관아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소산성과 관북리, 쌍북리 일대에서 건물지가 조사되었으나 적어도 왕궁이나 관아의 중심 건물은 사찰과 비슷한 형태나 위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비기 초기 건물지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다.

사찰과 같은 종교 유적은 교리와 신앙의 대상에 따라 건축 양식이나 사용되는 자재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완성된 종교가 유입될 경우 그 건축 양식이 함께 들어와 사회에 이질적인 물질문화가 이식되기도 한다. 이는 한반도나 일본에 사찰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백제는 일본 최초의 사원인 飛鳥寺를 건립하는데 瓦博士 등 기술자 집단을 파견하여 사원 조영 기술 전반을 전수해 주고(이병호 2013a), 이 당시 일본에는 사찰에서만 기와가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7세기 후반 藤原宮을 조영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독자적인 기와 문양 창출과 내재화는 물론 기와 공급체계를 완성시키게 된다(이병호 2013b: 197). 또한 藤原宮 시기부터 이전에 궁전에 사용되던 전통적인 굴립주식 기

3) 사비도성 내부 건물을 축조 기법에 따라 상초건물, 지상건물, 수혈건물로 구분되며, 지상건물은 고상식건물, 지상식건물, 벽주식 건물로 세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강소희 2017: 143).

등이 아닌 궁전에 처음으로 초석을 사용한 건물지가 조성된다(小澤毅 2003).

飛鳥寺 창건을『日本書紀』나『元興寺緣起』를 바탕으로 588년 조영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6세기 후반에 종교시설인 사찰에는 기와 건물과 초석이 있는 건물지가 백제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일본 왕궁에는 초석과 기와가 약 100년이 지난 7세기 후반에 사용된다. 따라서 고대 건물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실 · 관아 건물과 사찰과 같은 종교 건물은 구분하여 전개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비도성 내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건물들의 배치를 살펴보면 부소산성이나 북나성(청산성 정상부) 유적과 같이 비교적 고지대에 있는 중심 유적에는 벽주 건물과 가구식 굴립주 건물, 초석건물, 와적기단 건물 등 다양한 건물지 형태가 모두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천도 초기 유구가 집중되어 있는 부소산성의 남동쪽 쌍북리 일원에는 벽주 건물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가구식 구조의 건물 중에서는 가구식 굴립주 건물이 주로 확인될 뿐 초석 건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저지대였던 부소산성의 남서쪽 관북리 일원에서는 벽식구조의 건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가구식 초석건물의 분포비율이 높다. 관북리 일대는 6세기 후반경 대단위 성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다수의 가구식 초석건물은 이 성토대지 상면에 조성되었다.

이외에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는 사비도성 내 대부분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평탄지나 저지대에서 확인되는 비중이 좀 더 높으며, 초석 건물지는 관북리나 화지산 등 백제 왕궁 · 관아시설로 비정되는 중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찰에서 확인되는 특징이 관찰된다.

사비도성 내 왕궁 · 관아 유적 건물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웅진기 왕성과 국가시설로 이해되고 있는 공산성과 정지산 유적의 건물지와 사비기 왕궁, 관아, 이궁 등으로 연구되고 있는 부소산성과 관북리, 쌍북리 일대, 화지산 유적의 건물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웅진기 왕성으로 이해되고 있는 공산성에서는 웅진기 주요 건물은 모두 가구식 굴립주 건물과 벽주 건물이다. 공산성 내 건물지 변천은 추정왕궁지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벽주 건물지로 구에 의해 주공열이 연결된 벽주 건물지 → 대형 기둥구멍의 굴립주 건물지 → 초석 건물지로 중복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공북루 남쪽의 백제 왕궁 관련 유적에서는 구에 의해 주공열이 연결된 벽주 건물지 → 구가 없는 벽주 건

물지 → 적심토, 초석 건물지가 중복되어 조사되었다(이현숙 2023: 70).

다만 여기서 제시한 초석 건물지는 대부분 지하식 초석의 형태로 벽주 건물지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사비기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이현숙 2023: 77)하였는데, 이는 사비기에 조사되는 초석 건물지와는 다른 벽주 건물 내 기둥에 초석이 일부 채용된 형태로 벽주 건물지 범주에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즉 공산성 내부에서는 웅진기부터 사비기까지 일부 변화 발전은 있으나 가구식 굴립주건물과 벽주건물지가 백제 사비기까지 주요 건물로 지속된다.

공산성 백제 왕궁 관련 유적 건물지　　정지산 유적 중심 건물지

[사진 4] 웅진기 공산성 및 정지산 유적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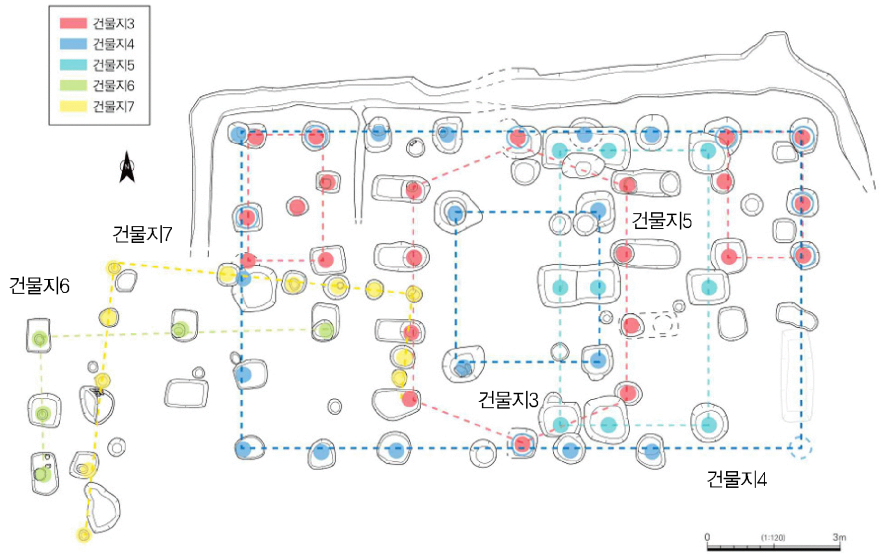
정지산 유적의 경우 백제 웅진기 국가시설물로 Ⅰ기(5세기말~6세기초)에는 수혈주거지와 저장공이 조성되고, Ⅱ기가 유적의 중심 시기로 정상부를 평탄화한 다음 벽주건물(대벽건물)과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가 축조된다. 이후 백제 사비기에는 석실묘나 옹관묘가 들어서 6세기 중엽경에는 유적의 성격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립공주박물관 1999: 218~222). 정지산 유적 건물지의 경우 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상부 중앙 평탄지에 이중 구조의[4] 특수형 건물지와 1유형의 벽주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목책의 바깥으로는 남쪽 경사면을 따라 2유형과 3유형의 벽주 건물지만 확인되고 있어 건물지 배치에 목책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김대영 · 조운득 2024).

부소산성 남쪽의 부여 쌍북리 일대에서 최근 사비기 초기부터 조영된 건물지 8기

4) 정지산 유적 기와건물지와 쌍북리 유적의 건물지4에서는 내부에서 일정 간격으로 주망이 형성된 기둥 자리가 방형으로 배치되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벽주 건물지 내부에 기둥이 배치되지 않는 것과 다르게 기둥이 내부에도 방형의 구조로 확인되어 이중 구조 건물지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상부 구조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확인되었다(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2024a). 이중 중요 건물지는 조사지역 북쪽 경사면 상단부 평탄지에 약 5번 중복 조성되어 있다. 중심 건물은 대지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물지 3과, 이중 구조의 대형 건물인 건물지 4이다. 건물지 3은 '品'자형 배치의 건물로 공주 정지산 유적의 중심 건물지와 배치가 유사하다. 건물지 4는 장방형의 대형 건물로 내부에 정방형의 기둥이 있는 이중의 건물 기둥 배치가 확인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중 구조의 건물은 웅진기 국가차원의 제의 시설로 보고된 공주 정지산 유적의 중심 건물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쌍북리 유적에는 웅진기 공산성이나 정지산 유적에서 조사된 건물지 형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건물지의 중복 조성, 유적 내에서 출토된 가야 토기 등으로 볼 때 사비천도 초기부터 말기까지 건물지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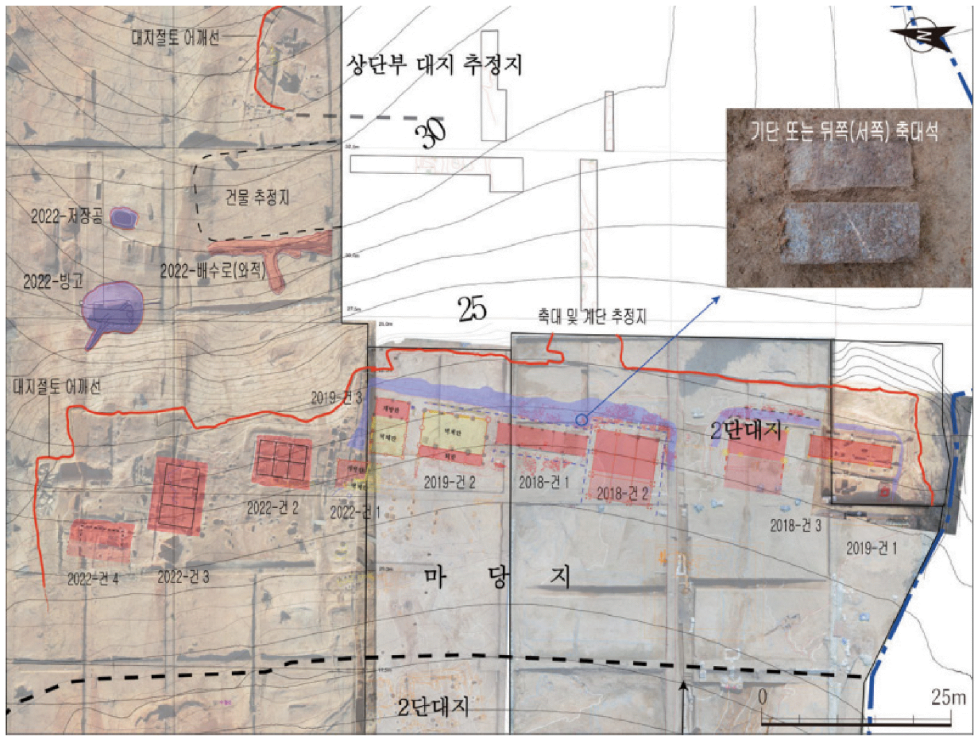


[도면 3] 부여 쌍북리 유적 중심 건물지 배치(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2024a: 110)

다만 쌍북리 유적의 건물지 중복 상황으로 보았을 때 3번째 조성된 건물지인 건물지 4까지 '品'자형 건물지와 대형의 이중구조 건물지 등 중요 건물지가 조성되다가, 건물지 4 이후 조성된 건물지 6, 7은 일반적인 건물로 변화된다. 즉 쌍북리 유적에서는 사비천도 초기 특수 건물지나 대형 건물지가 조성되다가 사비기 후기에는 일반건물지로 성격 변화가 관찰된다.

부여 화지산 유적은 사비기 이궁(김낙중 2021: 181~184)이나 최근 22부사 중 외곽의 客部관련 국가시설(최병화 2023: 171~172), 사비기 최고 지배층이 사용한 공적시설로 왕족 들의 거주 공간(이병호 2024: 54), 익산과의 관계에 따라 이궁에서 객관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을 가능성(김영심 2024: 295)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부여 화지산 유적은 총 14차례 이상의 지표 및 시 ·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유구를 다수 확인하였으며, 백제 건물지는 수혈 건물지 3동, 벽주 건물지 약 10동 이상, 굴립주(고상) 건물지 1동 이상, 구들 시설 건물지 1동, 초석 건물지 19동 등 총 34동 이상이 확인되었다. 화지산의 사비기 건물지는 2단계 정도로 구분된다. 사비 1기(6세기 전 중반~후반)에는 수혈 건물지(건물지 8호), 굴립/벽주 건물지, 굴립주열 등이 있으며, 사비 2기(6세기 후반~7세기 중 · 후반)에는 대지를 조성한 뒤 초석 건물지, 계단지 및 축대 등이 확인되었다(최병화 2023: 156). 화지산 유적의 중심 시기는 초석 건물지가 조성되던 6세기 후반~7세기 중 · 후반이다.



[사진 5] 부여 화지산 유적 중심 건물지 배치(최병화 2023 : 도 22 재인용)

부여 관북리 유적은 크게 3단계로 유적의 변화상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유적의 1단계와 2단계는 관북리 일대가 대단위로 성토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2단계와 3단계는 조사지역 '라'지구를 중심으로 와적기단 건물군이 조성되다가 건물들이 폐기되고 상면으로 대형 전각건물이 조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9a).

성토 이전에 조성된 1단계 유구들을 살펴보면 관북리 유적의 동쪽으로는 가마터 · 공방터 · 공방폐기장 · 노시설 집중분포지 등 생산과 관련된 유구들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조사지역 서쪽으로는 목곽고와 석곽고 그리고 다양한 평면형태의 구덩이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저장과 관련된 시설이다.

2단계와 3단계 유구들은 소위 제 Ⅶ층군으로 구분한 성토층 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1단계에 비해 경사지와 저지대 지역이 평탄화 되면서 유적의 분포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전 1단계에서 보이던 저장이나 생산과 관련된 시설보다는 점차 대형 건물과 상하수도시설, '+'형태로 교차하는 도로유구 등이 조성되고 있어 유적의 성격과 위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단위로 성토가 시작되는 2단계 이후의 중심건물군은 2004년~2007년 조사된 관북리 유적 라지구에 위치한다. 라지구의 2단계에서 확인되는 와적기단 건물지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3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상면으로 다시 3단계 문화층이 조성되면서 그 잔존상태가 양호하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잔존하고 있는 유구의 흔적을 기준으로 제원을 추정해 본다면 대략 9.5m~16m 정도의 크기로 추론해 볼 수 있다.

3단계에는 이러한 와적기단 건물지의 상면으로 크기 35×18.5m, 또는 35×19.25m 규모의 대형전각건물이 조성되고 있으며, 대형 전각건물의 주변으로는 담장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시설물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적 현황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3단계에는 관북리 일대의 중심 건물이 이 서쪽 구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 웅진 · 사비기 왕궁 · 관아 유적 건물지를 살펴본 결과, 사비천도가 진행되는 6세기 전반부터 사비도성 내부가 재개발되는 6세기 후반까지를 사비기 건물지 1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웅진기의 건물지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기이다. 웅진성인 공산성과 정지산 유적에서 확인되는 벽주 건물지,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가 사비천도 후에도 계속 중심 건물지로 사용되며, 부소산성 군창지를 중심으로 기반토에 대형의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 벽주 건물지가 조성된다. 부여 쌍북리 일원에는 '品'자형

굴립주 건물지, 화지산 유적에서는 수혈 건물지(건물지 8호)와 가구식 굴립주 · 벽주 건물지가 조성되는 시기이다.

공산성(웅진성) 백제 왕궁 관련 유적 건물지

부소산성 군창지 하층 건물지

부여 쌍북리 525-1유적 건물지 현황 및 출토 가야 토기

[사진 6] 사비기 건물지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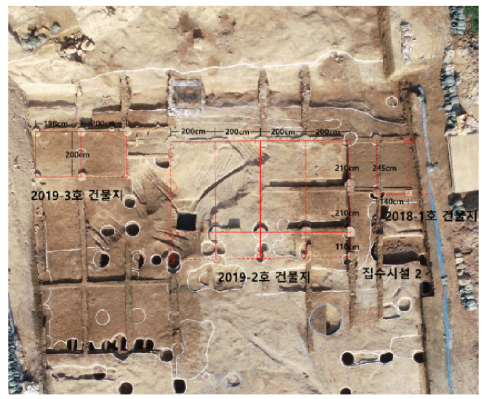
사비기 건물지 2단계는 6세기 후반부터 무왕 31년(630)까지 시기로 대부분 유적에서 1단계 건물지 상면을 성토하고 와적기단 건물지나 초석 건물지를 조성하는 시기이다. 2단계에서 주목되는 건물지는 와적기단 건물지가 있는데, 부소산성 군창지 동쪽에서는 대단위 성토 후 대형의 와적기단 건물지 5동이 일정한 배치를 가지고 조성되고 있으며, 서문지 주변과 궁녀사 구간에도 와적기단 건물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시기는 도성이 확장되는 시기로 부소산 남쪽의 쌍북리 유적에는 '品'자형 굴립주 건물지 상면으로 성토 후 대형의 이중 구조 건물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화지산 유적에서도 성토 후 중심 건물지인 초석 건물지군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저지대였던 관북리 일대가 대단위로 성토되어 개발되는 시기로 건물지가 거의 조사되

지 않았던 관북리 일대에 와적기단 건물지가 조성되는 시기이다.

2단계의 시작 시점은 관북리 유적의 성토대지 조성시점(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9a: 70~74)(6세기 4/4분기)과 사비도성 내 왕궁 유적에서 와적기단이 축조되는 것으로 연구되는 시기(김혜정 2011: 123) (6세기 3/4분기), 화지산 유적의 초석 건물지 조성시기(6세기 후반), 부소산성 내 와적기단 건물지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값 A.D. 560~642(95.45%), 좀 더 세부적으로는 A.D. 582~607년(43.96%)을 고려하였다.

부소산성 와적기단 건물지(상층)



화지산 유적 초석 건물지(상층)

[사진 7] 사비기 건물지 2단계

사비기 건물지 3단계는 7세기 전반(630년)부터[5] 백제가 멸망하는 7세기 중반(660년)의 기간으로 부소산성 내부에 더 이상 새로운 형식의 건물지가 조성되지 않으며, 와적기단 건물지가 계속 중심 건물지로 유지되고, 쌍북리 일대는 이중구조의 대형 건물지 폐기 후 더 이상 중요 건물지가 조성되지 않고 소형의 일반 벽주 건물지와 가구식 굴립주 건물지만 조성되는 시기이다.

화지산 유적에서도 2단계 건설했던 초석 건물지가 계속 이어진다. 이 단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은 부여 관북리 일대로 와적기단 건물지 상면으로 2차 성토가 진행되며, 이전 건물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인 35m 크기의 대형 전각건물지가 조성된다. 이러한 대형 전각건물지와 유사한 형태와 크기의 건물이 익산의 왕궁리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3단계의 시작 시점은 사비 궁궐을 수리하여 고치는 왕궁의 축조나 중수에 관한 첫

5) 『三國史記』 百濟本紀4, 武王 三十一年, '春二月 重修泗沘之宮 王幸熊津城 夏旱 停泗沘之役秋七月 王至自熊津'

번째 기사로 무왕이 사비궁 중수에 따라 웅진으로 이동하는 무왕 31년(630) 시점과 관북리 유적 2차 성토대지 내에서 확인되는 개원통보(唐 武德4年 621년 처음 주조)의 연대를 고려하였다.

부여 관북리 유적 대형 전각건물지　　익산 왕궁리 유적 대형건물지

[사진 8] 사비기 건물지 3단계

Ⅴ. 맺음말

지금까지 부소산성 내 건물지를 재검토하고 사비기 왕궁 · 관아 건물지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기존 부소산성 내 주요 건물지로 인식되고 있던 수혈건물지는 대부분 통일신라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혈건물지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인화문 토기가 주로 출토되며, 주변에서 '大唐' 명 와당, 중국제 자기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유구 현황과 출토 유물을 종합해 봤을 때, 부소산성 내의 수혈건물지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660년)한 뒤 672년 소부리주(사비주)가 설치되기까지 당과 신라군이 부소산성을 점령했던 때와 신라 소부리주(672년~686년)로 주성(州城)의 역할을 했던 시기에 조성되었던 유구로 판단된다.

부소산성 내 건물지는 사비천도 직후부터 부소산성 군창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형의 굴립주 건물이 조성되며, 6세기 후반부터는 군창지 동쪽으로 대단위 성토 후 대형 와적기단 건물지가 5동 이상 일정한 배치로 조성되고 있어 중심 건물지군이 군창지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세기 후반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와적기단 건물지는 부소산성 서쪽 공간인 서문지 주변과 궁녀사 구

간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사비기 건물지는 630년을 전후한 시기 다시 변화가 관찰되는데, 관북리 유적에는 대형전각건물지가 중심 건물로 조성된다. 그러나 부소산성에는 6세기 후반 조성되었던 와적기단 건물지군이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통일신라시대까지 일부 재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건물지 변화 양상을 고려하면 부소산성 내 중심 공간은 사비 천도 후 한동안 군창지 주변 평탄지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세기 후반경 관북리 일대가 개발되기 시작하며 부소산 서쪽 공간에도 와적기단 건물지가 조성된다. 하지만 사비기 건물지 3단계에는 중심 건물지가 관북리 유적과 익산 왕궁리 유적에 대형전각건물지 형태로 조성되며, 부소산성 내에는 더 이상 새로운 형태의 중심 건물지가 조성되지 않고 이전 시기 와적기단 건물지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중심건물지 조성 현황은 사비기 건물지 3단계에 부소산성 군창지 일대가 사비도성 내 핵심 공간으로서 중요도가 감소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논고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김대영 2025)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 한 것이다.

투고일 2025. 4. 29 | **심사완료일** 2025. 5. 25 | **게재확정일** 2025. 6. 5

참고문헌

강소희, 2017,「백제 사비도성의 건물유형 연구」,『마한 · 백제문화』30,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公州大學校博物館, 1992,『公山城 建物址』.

_____, 2016,『公州 公山城 Ⅰ』.

_____, 2019a,『公州 公山城 Ⅳ』.

_____, 2019b,『公州 公山城 Ⅴ』.

공주대학교역사박물관, 2023,「공주 공산성 추정왕궁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公州師範大學 百濟文化硏究所, 1982,『公山城』.

국립공주박물관, 1999,『艇止山』.

國立文化財硏究所, 1996,『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3,『扶餘 舊衙里 百濟遺蹟 發掘調査報告書』.

_____, 1995,『扶蘇山城 發掘調査 中間報告』.

_____, 1997a,『扶蘇山城 發掘調査 中間報告Ⅱ』.

_____, 1997b,『王宮里 發掘調査 中間報告 Ⅱ』.

_____, 1999a,『扶蘇山城-整備에 따른 緊急 發掘調査』.

_____, 1999b,『扶蘇山城 發掘中間報告書Ⅲ』.

_____, 2000,『扶蘇山城 發掘中間報告書Ⅳ』.

_____, 2002,『花枝山 遺蹟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3,『扶蘇山城 發掘調査報告書Ⅴ』.

_____, 2009a,『夫餘 官北里百濟遺蹟 發掘報告Ⅲ』.

_____, 2009b,『夫餘 官北里百濟遺蹟 發掘報告Ⅳ』.

_____, 2011,『부여 정림사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扶蘇山城 1981~200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부여군, 2022,『扶蘇山城 -종합학술연구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3a,「부여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2023b,「부여 관북리 유적(16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2024a,『부여 쌍북리 525-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24b,『백제 후기 벽주 건물지 유형분류 자료집』.

김낙중, 2021,「백제의 익산 경영 방식의 전환과 사비 재정비」,『문화재』54-2, 국립문화재연구원.

김대영, 2025,「백제 사비기 부소산성의 성격 변화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대영 · 조운득, 2024,「백제 후기 벽주 건물지 유형과 전개」,『한국고고학보』2024-1, 한국고고학회.

김대영 · 한욱, 2023,「사비기 부여지역 건축구조 복원 - 벽주(다주주) 건물지를 중심으로-」,『백제건축고고학 땅 속에서, 땅 위로』, 제47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김영심, 2024,「부여 화지산 유적의 문헌사적 검토 - 유적의 성격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백제학회』48, 백제학보.

김혜정, 2011,「백제 사비기 와적기단 건물지 검토」,『지방사와 지방문화』14권, 역사문화학회.

백제고도문화재단, 2021,「부여 부소산성 발굴조사 2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_____, 2014a,『사비왕궁지구 유적』.

_____, 2014b,『부여 쌍북리 154-10번지 泗沘 工房區 유적』.

류기정, 2003,「사비기 기와들시설 건물지에 대한 일고-부여 정동리유적 건물지를 중심으로」,『국립공주박물관

기요』제3집, 국립공주박물관.
서현주, 2017,「분묘로 본 백제 고도의 신라 지배 양상ㅡ부여 · 청양 지역을 중심으로」,『백제학보』22.
小澤毅, 2003,『日本古代宮都構造の研究』.
손세관, 2001,『넓게 본 중국의 주택 중국의 주거문화上』.
윤무병, 1985,『夫餘官北里百濟遺蹟發掘報告(Ⅰ)』, 忠南大學校博物館, 忠淸南道廳.
_____, 1999,『夫餘官北里百濟遺蹟發掘報告(Ⅱ)』, 忠南大學校博物館, 忠淸南道廳.
이건일, 2009,「湖西地域 百濟住居址의 地上化過程에 관하여」,『호서고고학』24, 호서고고학회.
이병호, 2013a,「百濟寺院과 飛鳥寺 三金堂의 源流」,『백제연구』57,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13b,「일본의 도래계 사원과 백제 유민의 동향 2 -飛鳥, 기타 지역의 고고학 성과를 중심으로-」,『선사와 고대』39, 한국고대학회.
_____, 2024,「기와의 분석을 통해 본 부여 화지산 유적의 성격」,『百濟學報』, 백제학회.
이현숙, 2023,「백제 웅진기 건물지의 평면변화와 위계」,『호서고고학보』55, 호서고고학회.
최병화, 2023,「부여 화지산 백제 초석 건물지의 구조와 성격에 대하여-부여 화지산 유적의 연구 쟁점과 향후 과제를 위하여」,『백제의 왕궁 · 왕성』,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 · 관리사업추진단.
_____, 2024,「부여 화지산 유적 백제 유구의 조사현황과 층위별 조성양상」,『부여 화지산유적 조사 성과와 위상』(부여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 백제역사문화연구원.
洪潽植, 2001,「6~7世紀代 新羅古墳 硏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0,「물질문화로 보는 삼국통일-고고학적 접근」,『역사비평』131, 역사비평사.

http://doi.org/10.20292/jcich.2025.47.69

A Study on the Evolution of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 Sites during the Baekje Sabi Period

-Focusing on Busosanseong in Buyeo-

Gim, Dae-Young(Research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reexamines existing excavation data of the building sites within Busosanseong Fortress, which has been studied as the royal palace site of Baekje during the Sabi Period. The study explores the nature and transformation of the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s from the late Baekje period. While past research has primarily recognized the sites within Busosanseong Fortress as those of sunken-floor dwellings,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se sunken-floor buildings were constructe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Instead, the primary building sites identified include raised-pole buildings, wall-supported buildings, and those with fired brick foundations.

In particular, research on the Baekje Sabi period buildings has mainly focused on religious structures, such as temples. This has made it challenging to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 of building sites related to the royal palace and government offices. While the highest quality materials and advanced techniques were employed in both the royal and religious buildings, religious structures often used selective architectural styles and materials based on doctrinal and faith-based needs. Moreover, when foreign religions were introduced, their architectural styles were brought in, potentially leading to different forms of construction compared to the royal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s.

The study finds that the building sites of the Baekje royal palace and government offices at Busosanseong can be divided into three distinct phases of transformation. The first phase, from the early 6th century to the late 6th century, during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to Sabi, shows that the primary structures were raised-pole buildings and wall-supported buildings similar to those of the earlier Gongjin period. The second phase, from the late 6th century until the 31st year of King Mu's reign (630 AD), saw the raising of the building platforms and the construction of raised-brick foundation buildings (basal buildings) that became the main structures. The third phase, from the early 7th century (630 AD) until the fall of Baekje in the mid-7th century (660 AD), was marked by the cessation of new building types within Busosanseong, with large palace buildings at Gwanbuk-ri and Wanggung-ri becoming the central structures.

The transformations of building types and the locations of the central buildings align with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enters of the Sabi capital and the royal palace area.

Key words : Baekje, Sabi Period, Sabi Capital, Building Sites, Busosanseong, Gwanbuk-ri Site, Royal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 Sites